

# 대형병원 쓸림 방지한다...상급병원 중증환자 진료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중증환자 진료할수록 고평가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중증환자 보상 인상 조정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쓸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평가·보상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쓸림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돼 왔던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0년간(2008~2018년)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이 4.1%에서 5.6%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기관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입원일수 점유율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14.9%에서 16.7%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13.8%에서 7.8%로 감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경증입원환자(간단하고 진료·진단 난이도가 낮은 질병)는 기존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경증외래환자(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는 기존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기준보다 경증환자를 더 적게(입원8.4%, 외래4.5%까지) 유지시, 차등점수도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중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중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도 구성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환자가슴은 찢어집니다”... ‘면역항암제’ 해외선 보험, 국내선 냉대

‘키트루다’ 1차 치료제로 사용시 2차 치료 때보다 생존율 크게 올라

“뛰어난 신약이 있지만 1차 치료시 비보험이라 옛날 약을 먼저 쓰자고 합니다.”

기존 항암제(화학요법)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을 크게 줄인 면역항암제가 많은 국가에서 초기 단독 치료제(1차 치료)로서 보험 적용을 받고 처방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같은 항암 신약에 대해선 비싸다는 이유로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선 대부분 수명연장과 합병증 예방에 따른 재정절감을 위해 면역항암제를 일찌감치 보험약으로 지정했지만, 국내 환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홍민희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면역항암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갖기 힘들었던 암환자들에게 장기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한 표준치료제로 자리잡았다”며 “다만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여도 1차 치료 시 비보험이라, 기존 항암제로 먼저 치료받고 병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 뒤에야 처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민희 교수는 이어 “아래한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국내 현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면역항암

제가 1차치료제로서 빠른 보험급여가 적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키트루다’(성분 펌브롤리주맙)는 현재 전세계 매출 1위 면역관문억제제다. 그러나 국내에선 2017년 출시 이후 2년째 1차 치료제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환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 ‘키트루다’는 현재 기존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은 뒤 효과가 없거나 병이 진행될 경우 2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항암제가 부작용이 크더라도 위험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키트루다’는 2017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소세포암 1차 단독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측과 1차 치료제로서 보험급여를 위한 협상이 수차례 결렬돼 왔다.

반면 전세계 OECD 36개국 중에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적용시킨 국가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비슷한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표국들과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27개국(75%)에 달한다. 1차 치료시 ‘키트루다’의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사이 ‘키트루다’는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임상데이터가 지속 발표되고

있어 보험급여에 대한 시급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2017년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발표된 임상3상 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단백질 PD-L1 발현율이 높은(TPS≥50%) 진행성 비소세포암 1차 치료에서 전체 생존기간(OS) 30개월을 기록해 기존 항암제 14.2개월 대비 생존기간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질병이 더 확대되지 않은 무진행 생존기간(PFS)도 10.3개월로 기존 항암제보다 4.3개월이 더 늘었다. 이상반응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또 올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임상 추적관찰 결과에서 ‘키트루다’의 1차 치료 효과는 더 명확하다.

다른 약물치료 경험이 없는 폐암 환자들에게 키트루다를 1차로 단독 투여한 결과 5년 전체 생존율은 23.2%를 기록했고, 약물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했다니 생존율이 15.5%로 줄었다. 특히 기존 항암제의 5년 생존율이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도 우수한 효과다. 올해 ASCO에서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1차 치료를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2차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치료를 포기해, 1차 치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이에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NCCN Guideline)은 PD-L1 발현율 50% 이상인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옵션으로 ‘키트루다’ 단독 투여를 가장 높은 권고 등급인 ‘Category 1’으로 분류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보험적용 세계 현황

순위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급여	비급여	급여
1	오스트리아	터키	콜롬비아
2	벨기에	뉴질랜드	브라질
3	캐나다	멕시코	바레인
4	덴마크	체코	요르단
5	프랑스	인도	레바논
6	독일	질레	키프로스
7	그리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8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스코틀랜드
9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아랍에미리트
10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11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12	네덜란드		불가리아
13	노르웨이		대만
14	포르투갈		
15	스페인		
16	스웨덴		
17	스위스		
18	영국		
19	미국		
20	일본		
21	핀란드		
22	오주		
23	헝가리		
24	폴란드		
25	슬로바키아		
26	슬로베니아		
27	이스라엘		
총	27개국	9개국	13개국

상태다. 그 중에서도 ‘키트루다’는 선호요법으로 우선 권고된다.

뉴스1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